

보도참고자료

이 자료는 2000년 3월 16일 오전 9시
30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디지털 經濟의 到來와 金融産業

2000.3.16(木)

財政經濟部長官
李 憲 宰

I. 인사말

☐ 국내외 금융관계자 여러분

☐ 2000 국제금융박람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Business Conference에서 여러분을 모시고

○ 『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금융산업』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☐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제는 실로 엄청난 도전과 변화를 겪었습니다.

○ 특히, 금융부문은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그로 인한 부실의 누적이 외환위기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비판 속에서 어느 분야보다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쳤습니다.

○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의 결과로 금융중개기능이 빠른 시간에 회복됨으로써

- 우리 경제가 안정 속에서 높은 성장을 이룩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.

□ 그러나, 그동안의 성과는 위기극복이라는 과거 회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분명한 업적이긴 합니다만,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면 단지 발등의 불을 끈 것에 불과합니다.

-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새로운 도전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

□ 우리가 21세기의 중요한 추세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주목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좌표를 정확히 설정하여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

- 지금부터 디지털 경제 및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

II. 디지털 경제의 도래

- 디지털경제는 정보기술(Information Technology) 및 컴퓨터기능의 획기적 향상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전의 산업경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- 디지털 경제의 주요 특징은 크게 ①거리의 소멸과 네트워크화 ②소비자 중심의 경제 ③가치창출 요소의 변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.
- 우선, 디지털 경제에서는 전세계의 물적·인적 정보 및 지식교류가 실시간으로 컴퓨터의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져 지구차원의 시간적·공간적 거리감이 소멸되는 네트워크 경제를 형성하게 됩니다.
- 이에 따라 고객을 많이 확보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“네트워크 효과”에 따라 생산량증가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점차 적어지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하게 됩니다.

□ 둘째로, 생산자, 유통업자, 소비자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고,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소비자에 비해 많은 정보를 가지는 산업경제와는 달리

- 디지털경제에서는 소비자요구에 맞게 제품을 설계하고, 가격을 설정하는 등 정보와 프로세스가 소비자 중심으로 통합되어 소비자 잉여 (Consumer's surplus)가 증대됩니다.

□ 셋째로, 산업경제에서는 주요 생산요소가 토지, 노동, 자본이었으나 디지털경제에서는 지식, 정보, 시간이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

- 유통, 소비등 모든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,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요소들과 다르게 됩니다.

□ 그러나 여기서 저는 우리가 디지털 경제의 환상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.

- 전화가 발명되어 생활양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전화관련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도 같이 발전시켜 왔듯이

- 디지털 경제와 직결된 정보·지식 산업이 제조업 등 여타산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며,
- 기존 산업도 나름대로 중요성을 갖고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.
- 중요한 것은 디지털 경제에 발맞추어 빠르게 변화하지 않는 기존 산업은 도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
Ⅲ. 디지털경제의 파급 효과

- 이러한 디지털 경제가 산업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
- 먼저, 디지털 경제에서는 장기호황속의 물가안정이라는 신경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.
- 최근 미국경제의 호황은 인터넷,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도 물류, 유통비용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.

- 미국의 95~98년간 정보기술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1/3을 넘고, 96~97년 정보기술산업의 고용 증가율(7.7%)이 산업평균치(3%)의 2배를 넘고 있다는 데서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.
- 둘째로, 시장에서의 거래비용, 유통비용의 감소로 인하여 생산의 각 단계를 이어주었던 중개기능이 축소되고
 -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판매 및 유통망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고정 관리비용으로 나타나 오히려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
 -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소규모 전문 기업활동이 활발하게 될 것입니다.
- 셋째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과 같이 일단 시장 우위를 확보(First mover's advantage)하면 업계 전체의 표준이 되어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게 되어 독과점 기업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.
 - 좋은 예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99년 현재 응용소프트웨어 분야의 90%를 선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□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산업구조의 변화는 타 산업보다 특히 정보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.

○ 우선, 사이버금융이 금융산업의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.

-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 주식거래가 지난 1월 기준으로 전체 주식거래의 44.6%에 달하는 등 디지털 경제를 실감하고 있으며

- 아직 절음마 단계이지만 인터넷뱅킹, 인터넷 보험상품 판매 등 최첨단기술을 이용한 전자금융(사이버금융)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.

○ 둘째로, 전자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전자화폐가 유통되고 전자화폐의 편리성, 안전성으로 점차 현금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.

- 전자화폐는 컴퓨터, IC카드, Network등 전자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 및 서비스 구매시 활용하는 지급수단으로

- 가치저장형태에 따라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의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IC카드형 전자화폐를 개발중에 있으며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소규모 회원제 단위로 활용중입니다.
- 셋째로, 금융기관의 핵심경쟁력인 영업인력의 수, 지점망을 중심으로 하는 판매전략이 퇴조하고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가격 및 상품경쟁력이 중시되어
 - 수십명이 근무하는 대형점포는 사라지고 다수의 무인점포 및 소규모 점포의 운영이 일반화될 것입니다.
 - 미국에서는 Nation bank, Union bank등이 유통업체와 제휴하여 슈퍼마켓에 3~4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소형점포(In-store branch)를 운영하고 있으며
 - 점포가 전혀 없는 무점포은행(Internet-only bank)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

○ 넷째로, 정보통신 또는 금융 소프트웨어사등 비금융기관이 사이버시장의 기존 영업망을 이용하여 금융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

- 소규모 금융기관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정보통신회사와 제휴를 활발히 하는 등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

○ 마지막으로, 일반 산업과 동일하게 독과점화가 심해지고, 금융시장이 국가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세계 단일시장으로 통합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

- 금융기관간 경쟁심화로 소매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인수 및 합병이 촉진되어 거대금융기관이 출현할 것으로 보이며

- 사이버 금융시장이 확산되고, 국가간 대규모 자금흐름이 활성화 되면서 전세계가 단일 금융시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

IV. 전자금융 확대에 따른 정책방향

- ☐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따른 전자금융화에 대비하여 정부는 제도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- ☐ 우선, 전자자금 이체에 따른 피해발생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표준약관을 제정·운영할 계획입니다.
 - 이러한 표준약관이 비은행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
 - 장기적으로 전자자금이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.
-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에 “전자자금 이체법”을 제정하였으나,
- 여타 국가의 경우 별도의 입법보다는 금융권의 자율 규약 또는 약관을 통하여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□ 사이버 금융거래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상에 허위로 공시되는 정보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

○ 금융감독원은 조직을 개편하여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검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.

○ 또한, 인터넷 공모시 제공되는 기업관련 정보를 일정기간 이상 보존관리함으로써 부실공시와 관련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.

□ 금융산업정책의 측면에서도 디지털경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
○ 금융기관의 대형화, 겸업화를 통하여 「규모·범위의 경제」를 실현할 수 있도록

- 금융자주회사를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

- 사이버 금융기관의 도래에 따라 금융산업 진입 기준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

V. 맺음말

-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은 금융의 소프트웨어 개혁을 통한 금융개혁을 완성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
-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집약형 산업으로서 우수 인력의 확보여부에 따라 금융기관의 존폐가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
- 이제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“경영학, 경제학 전공자”가 아니라 “컴퓨터 프로그래머”라고 씨티은행의 B.리스턴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금융기관과 정보기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.
- 따라서, 금융의 소프트웨어 개혁의 핵심은 인력(human capital)과 정보기술(IT)이며

- 금융기관은 자발적으로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여야 합니다.

☐ 이를 위하여 능력있는 인재가 중용되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하는 인사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합니다.

- 또한, 각 금융기관의 자체연수 및 국내외 위탁 연수를 강화하여 실제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

☐ 세계각국의 선진 금융기관과 국내 금융기관이 만나는 2000국제금융박람회에서

- 21세기의 화두인 디지털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

☐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